3년을 복역하고도 또다시 군대로

부당징집은 학생운동 약화위한 탄압술 과거청산의미로 해결의지 보여야

'문민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한 이후 우리 사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혁'의 바람이 그 방향타를 대부분 과거청산과 국민대화합이라는 전국민적 모토에 두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지난 3.6사면조치에 대해 '시혜(?)'의 당사자들인 재야운동계, 그 중에서도 시국사범들의 가족들로 구성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와 '양심수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양군모)'이 '모든 양심수들의 석방' '수배자들에 대한 수배해제 조치' 그리고 '양심수에 대한 부당징집 철폐'를 요구하며 지난 5월3일부터 민주당사에서 무기한 농성 중이다.

'조국의 민주주의와 통일' 그리고 '노동해방, 인간해방'을 앞당기려는 소박한 열정으로 5·6공화국의 권위주의적인 통치에 저항하다가 구속된 청년학생은 6공정권하에서 3천여명이 넘는다. 이들은 흔히 말하는 범죄자라기 보다는 정권유지를 위한 각종의 악법과 조작으로 양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를 하여 '양심수'라고 지칭되고 있다. 이들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대부분 사면, 복권 되었으나 또 다시 군징집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즉, 2년 내외의 수배와 징역생활에 이어 다시 군대에 갈 경우 짧게는 4년, 길게는 6년 이상을 사회와 격리된 채 수의와 군복 속에서 보내야 한다. 4~6년 동안 사회와 격리되면 심각한 사회 부적응 낳게 되고 인생의 소박한 꿈을 펴볼 젊음을 송두리째 잃을 수 있다는 피상적 현실의 내부에는 시국사범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정상적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족민주운동을 탄압하고자 하는 고도의 통치전술이 숨어 있다.

병역법에 따르면 75년 7월10일 이전에는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귀정을 불문하고 징집면제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서슬퍼런 유신독재의 포악성이 달하던 75년 7월10일 이후 부터는 시행세칙이 개정되어 '대학생 현역 입영대상자는 여타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현역입영'으로 바뀌었다. 이는 75년 5월 이후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어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학생운동 관련자들을 무조건 입영시키려는 정치적 의도이다.

5·17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정권의 병역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집시법을 제외한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자는 면제 조치'되어 있다. 88년 8월 1일 시행령은 형량에 따라 일괄 적용되어, '1년 이상 실형 선고자로 2년 이상의 집행유예자는 면제 처리되고,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실형 선고자로 2년 미만의 집행유예자는 방위소집 대상'이 된다. 그러나 당시 학생운동 관련자들이 부당징집 반대활동을 활발히 전개한 결과 시국관련 징집대상자 483명 중 447명이 문익환 목사님 방북 이후에 개악된 89년 3월 25일 다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집행유예자 제외)'로 바뀌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정치환경에 따른 잦은 법개정과 시국사범 입영자에 가해지는 부당한 처우(고남현전-외국어대 88학번, 고송종훈-서울대 87학번의 경우와 프락치를 강요당한 윤석양, 최홍기의 경우) 및 일반수형자와의 차별(실형 혹은 징행유예를 받으면 군 면제)은 헌행 병역법의 성격을 명확히 보여준다. 더구나 시행령 103조(2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만 면제-집행유예자는 제외)의 규정에 따르자면 1년6개월의 형을 살고 나온 양심수가 다시 다른 사건으로 1년6개월의 형을 살고 나와 도합 3년의 수형생활을 마쳐도 단일사건으로 2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충역에 편입되지 않는 불합리를 감수해야 한다.

30여년 간의 군사통치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민간정부가 들어선 이후 새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새삼 설명한 것도 없이 새로운 '문민정치'의 출발이란, 과거 권위주의적 군사통치의 잔재를 청산하고 군사통치에 의하여 파생되어왔던 정치적 갈등들을 해소함으로써 진정 명실상부한 국민대화합을 이루는 것이기에 새정부가 출범한 이 후 3·6사면복권조치, 6공하 시국관련 제적생 복교조치,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 복직조치 검토 등 일련의 개혁적 조치들이 취해지는 것을 보며 국민들은 이러한 새정부의 적극적인 의욕에 많은 관심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사실상 동일한 맥락에 있는 6공화국 청년 양심수들의 군문제에 대한 병무청과 국방부의 태도는 교육부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아직까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도 지적되었듯이 기간 병역법 시행령의 변천사가 사실상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청년양심수들을 탄압해 온 도구로 전락해 온 병무행정의 어두웠던 과거를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그리고 현행 병역법 시행령 역시도 이러한 과거의 어두운 단면을 그대로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과거청산을 내건 새정부의 병무행정은 이들의 문제에 보다 포용력 있게 다가가야만 할 것이다.

이제 공은 병무행정 담당자들에게로 넘어갔다. 시국관련자들에 대한 교육부의 태도와 병무청의 태도 가운데 과연 어느 쪽이 과거 청산과 국민대화합이라는 새정부의 시각을 보다 올바르게 대변하는 것인가?

최 동 섭
〈지리·4,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경희대 대책위원회 위원장〉

시사삼식

◇…지하경제

실명제 통한 자금거래 이루어져야

요즘 신문의 사회면을 가득 메우고 있는 빼쳥꼬의 대부 '정덕진'사건은 한국의 음성적인 지하경제의 실태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막대한 자금력과 폭력조직이 결탁되어 집단적인 이기주의를 표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며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 최대의 장점은 경쟁을 촉진시켜 능력을 갖춘 개인이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질못 운영되면 '천민자본주의'로 흘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아랑곳 없이 자신의 이기적 부의 축적에만 편향적으로 흐를 수 있는 것이다.

지하경제란 가시적으로 자금의 흐름이 포착되지 않아 효과적인 유동성관리가 불가능한 제도권 밖의 금융경제를 가르킨다. 이는 정부가 경제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경제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지하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적절한 조세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탈세를 가정시킬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하경제의 조세탈세율은 대단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금액만큼이라도 정수 가능하다면 정부의 재정은 탄탄해져 자금을 현실경제에 이롭게 집행하여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금융실명제를 통하여 지하경제의 음성적이고 불건전한 자금거래의 소지를 제거하여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김영삼 정부의 출현과 더불어 신경제계획이 실시되고 있다. 현정부가 경제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하경제의 흐름을 차단시켜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음성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고 생산적인 경제활동만이 사회전체적으로 의미를 갖는다고 국민들에게 의식을 환기시켜 건전한 경제활동이 가능하게끔 유도할 것이다. 따라서 불로소득에 기인한 국민간의 위화감은 해소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총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하경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의 지하경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을 촉구한다.

박 현 철
〈경제학 석사과정 1기
경희경제연구소 연구원〉

정보홍수시대의 파수꾼

중앙도서관 현황과 전망(上)

Ⅰ. 현황과 문제점

우리는 정보의 홍수시대에 살면서 그의 올바른 판단과 입수는 물론 그 활용은 더욱 어려워서 정보의 더미 속에 살면서도 정보의 빈곤을 느끼고 있다. 우리 도서관은 교수 및 학생들이 폭 넓게 정보에 접근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신선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으나 그 해결은 쉽지가 않다. 그러나 처음부터 만족할 수 없는 일이고 보면 기초적인 문제부터 시작하여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밖에 없다.

도서관은 문헌정보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기초적인 수단으로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자료의 DB구축임으로, 본관은 1988년부터 도서정리및 카드입력등에 PC를 사용하게 되면서 도서관 전산화의 장도에 오르게 된 것이다.

4월중순부터, 관내에 5대의 단말기를 도서검색전용으로 배치해 놓고 1980년 이후 발행도서와 1991년(양서는 1988년)이후 입수도서를 온라인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학내 전산 네트웍의 백본상에 연결된 PC LAN 이기 때문에 서울, 수원 그리고 광릉 캠퍼스에서 랜상의 모든 PC에서 도서관의 자료 검색이 가능하다. 향후 도서 스템용 바아코드 부착, 그리고 이용자(계학생)화일의 활용이다. 이들 모두가 방대한 양의 동적화일이라서 입력과 관리에 예산과 인력이 많이 요구됨은 물론 계속적으로 입력 보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재학생 인적화일은 소속캠퍼스, 병설 각급 학교, 그리고 학적변동에 구애됨이 없이 랜상에서 현시점관리가 되어야 도서대출과 도서관 출입관리에 완벽을 기할 수 있다.

그리고 교내 전산이 확대될 경우, 카아드 하나로 서류 발급, 시설이용 도서관 이용 등이 가능해야 편리한데 어느 한 부서에서 카아드의 구성요소를 모두 규정할 수는 없다. 즉 카아드의 규격, 감식용 매체는 마그네틱이냐 바아코드냐 또는 둘다 넣을 것인가, 코드의 주구성요소는 학번이냐 주민중번호냐 등등 협의해야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Ⅱ. 시스템 구축현황과 방향

가. 서지 중핵적 자동화 시스템

중앙도서관은 1988년 초 bibliofile system을 도입하여 양서정리를 전산화하기 시작하여, 1991년초에는 동서정리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양서는 LC MARC 동서는 KORMARC로 데이타가 각각 입력되고 있으나, 검색 및 대출을 위하여는 KORMARC로 MARC을 통일하여 데이타 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5월 7일 현재 6천5백여종(도서수 9만2십만권)을 입력하였으며, 앞으로 어떤기종을 도입하더라도 데이타를 변환하여 토탄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도록 PC LAN상에서 입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른바 서지중핵적자동화시스템을 채택하여, 여타 부차적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가동키로 하였다.

나. 분산 처리에 의한 다운싸이징 구현

계산기와 통신기술의 끊임없는 기술혁신에 의해, 집중형의 계산시스템이나 단순한 STAND ALONE형 단말등의 오피스형태에서, 고속랜을 매개로하여 고기능 화일 서버나 워크스테이션을 다수 배치한 분산형 시스템으로 변해가고 있다.

분산시스템으로 다운싸이징하는 것이 대형 범용 컴퓨터에 의한 중앙집중시스템보다 유지보수비가 저렴하고 비용대효율비가 놀라울정도로 개선되고 있는 점은 이용하여 도서관자동화에도 범용 콤퓨터의 대역으로 워크스테이션이하의 크라이언트 써버 방식을 정착시켜 나갈때라고 생각한다.

더 강조 한다면 전문화시대, 분업화시대라고 불리우는 오늘날, 전산업무도 업무별, 정보매체별, 소프트의 기능별에 따라 SERVER를 따로 설치하고 NET WORK에 의해 CLIENT/SERVER TALKING이 되도록 하여 콤퓨터로 하여금 전문화 분업화로서 능률을 제고 시키는 것이다. 대형 콤퓨터라고 해서, 무턱대고 모든 업무를 실어놓고, 병목현상에 의해 떨어지는 업무수행속도를 보완하느라 하드웨어만을 자꾸 확장할것이 아니다. 다운 싸이징으로 필요한 일을 필요한 단위로 묶어 분산처리하게 한다면, 흔히 말하는 PC의 한계를 넘어 업무를 신속 저렴하게 처리해 줄 것이다.

IBM이 주력상품을 바꾸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회사의 간판상품을 메인프레임에서 PC로 바꿀 계획일 뿐 아니라, 금년안으로 PC와 워크스테이션 모두에 이용이 가능한 차세대형 기본 소프트(OS)를 제품화 한다고 했다.

〈다음호에 계속〉

이 호 련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사무국장〉

한주메모

▲3일-정부, 해·공군 후임 인사 단행. 이연근 준장 뇌물전달 혐의로 연행. 진급비리로 해병장성 7~8명 곧 사법처리.

-교육부, 87·88학년도 '금품' 수사 의뢰 않기로. 경기대 87·88년도 4백7명 부정편입 밝혀져.

-석탄일 맞아 시국공안사범 추가석방. 노동관련 구속자 대거 나올 듯. '유서사건' 강기훈씨 포함.

▲4일-안 전동화은행장, 연임 등 명록 수차례 뇌물. 장관·의원 등 6공 경제실세에 2억~10억씩 줌.

-무기도입 비리 관련 군·중개상 현장감사. 전직대통령 관련 여부도 조사. 해·공군 장성 후임 인사 해병 1사단장 정국본소장.

-'빠졌코대부' 정덕진 검거. 1백20억 탈세 혐의. 비밀계좌 3백여개. 정치권·검·경에 검은돈 추정.

▲5일-정부, 해직지사 복직·명예회복 위해 적극 중재 나서기로.

-검찰, 안행장 '14억 제공' 자백 불구 정치권에 간돈 추적 안해.

-무자격세무사 11명 구속. 면허 빌려준 교수 등 17명 입건.

▲6일-'하나회' 대령 8명 전방전출. 회원 확인 마무리, 중령급도 곧 보직변경.

-기무사 '진급비리' 개입 가능성. 해·공군 내사자료 비협조 수사부진.

▲7일-노소영씨 부부 미국 밑반입 20만달러 스위스 은행서 인출 밝혀져. 미국법원, 노씨부부 집행유예 1년. 검찰, 외화획만출 수사위해 노씨부부 다음주 소환.

-'차세대전투기 의혹 등 해명을' 공군 장교 50여명 총장에 건의. 공군 대책위 구성도 요구.

-북한·미국 중순쯤 차관급 회담. 베이징 접촉서 합의한 듯. 북한 원자로 우라늄 50t 핵무기 연료 사용 가능성.

▲8일-육군 인사비리조사 않기로. 국방부, "내사결과 충분한 증거 못 잡아". 해·공군도 수습…군개혁 최초 우려.

-88~93년도 대입부정 1천4백여명 오늘 공개. 공무원·언론인 포함. 사회지도층 사정 착수

는 이제, 해외기래선의 개발·미수교국 입성·수출시장 등 1967년 창업 이후 추구해온 시장개척 차원의 활동을 한 단계 끌어올려, 국내 기업중 가장 넓은 국 86개 지사망과 27개국 48개 현지법인을 축으로 세계 주요 지역에서 전략사업의 현지화를 하는 「세계경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써 대우는 악화된 오늘의 국내외 경영환경을 어느 보다도 효율적으로 극복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 두터운 세계장벽을 헤치고 나아가 우리경제의 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통신의 경우 이미, 미국·프랑스·영국 등지에서 반도체 지랜지·VCR·컬러TV 공장을 가동함으로써 경제권내에 생산거점을 확보한 상태이며, 가격경쟁력 와 시장확대 차원에서 중국 및 베트남·미얀마 등의 아, 동구권국가, 중남미 등지로 생산공장을 이전, 역의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을 이용하는 현지 생산 및 독립경영체제로 국제경쟁력을 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2일, 국제경쟁력을 갖춘 초일류 자동차 기로의 도약을 선언하고 군산 종합자동차공장의 첫 뜬 대우는, 우즈베크공화국에 세워질 18만대 구모의 국민차공장을 포함한 중국·베트남·이란·남미 에 해외 자동차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세계 굴지의 차메이커로 우뚝 서게 됩니다.

는 악재에도, 난공불락의 시장으로 여겨졌던 일본 시장을 헤치고 들어가 대규모 트윈빌딩인 '아시아 교역센터'를 건설중에 있으며, 리비아 대수로공사 이후 의 해외건설공사인 총공사비 10억불 규모의 파키스탄 로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등 대우는 해외건설부문에서 도 또 다른 신화를 창조해가고 있습니다.

벨지움의 CMB사를 인수하여 '90년에 유로대우사로 는 대우중공업은 이미 우리의 기술로 유럽 현지에서 중장비를 생산, 전세계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제신 유럽의 기업으로 —

아에선 아시아의 기업으로 —

대우는, 앞으로도 탈국경화 기업경영전략인 「경영」아래, 까다로운 규제장벽을 극복하는 전략사업의 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우리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해외 현지판매의 확대를 통한 국익창출에 앞장섬으로써 침체된 우리경제의 활로를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우리의 기술로 세계를 넘는다./

기술을 가진 나라만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기술을 가진 기업만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오늘날 — 대우는 오래 전부터 '우리의 기술로 세계를 경영한다'는 기치 아래 탄탄한 기술자립의 기반을 닦아왔습니다. 국내 최초로 産·學·硏 공동으로 정보통신·자동차·전력에너지·생산기술 등 4대 핵심기술을 연구하게 된 고등기술연구원, '81년 이후 500여명에 이르는 기술인력의 해외연수, 기초과학 침중투자 및 육성, 노벨상의 꿈을 실현한 대우 기술상·발명왕상 제정, 대우 기술위원회 발족 등이 기술대우의 자립기반을 다지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입니다. 특히 총5천억원을 들여 용인에 건립하는 고등기술연구원은, 일본 SRP (Soft Research Park) 내의 대우연구센터를 비롯한 국내외 유수대학의 기술석학 및 R&D센터, 생산현장의 상품기술부문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완벽한 기술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세계 1등 상품을 탄생시키는 우리기술의 메카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이제 대우는, 기술지립 의지를 새롭게 다지며, 집대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한 독자기술을 꿈입없이 개발함으로써 세계와의 기술경쟁을 승리로 이끌고, 나아가 우리기술로 선진 기술장벽을 넘어 세계무대에 우뚝 서는 「세계경영」의 대역사를 펼쳐가겠습니다.

세계의 자본시장을 뚫는다./

텃세와 규제가 심하기로 소문난 세계 금융시장의 메카, 유럽과 미국 —

대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금융부문의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국제 자본시장의 자유화에 대비한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옴과 동시에 우리자본의 세계화를 추구해왔습니다.

'91년 대우는 단독으로 런던 현지법인을 설립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금융시장의 본산인 뉴욕에도 현지법인을 개설함으로써 선진 자본시장의 핵심지역에서 당당히 경쟁하고 있습니다.

'90년 헝가리와 합작설립한 MHB·DAEWOO BANK는 해외금융투자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이 여세를 몰아 올해 2월에는 Magyer Daewoo Securieties를 설립하는 등 대우는 우리자본의 국제화를 어느 기업보다 앞서 실현해 오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자유화에 대비한 해외투자의 확대로부터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세계 현지 금융시장의 공략에 이르기까지 — 대우는 앞으로도, 거대한 국제 자본시장을 현지에서 직접 뚫어가는 공격적인 「세계경영」전략으로 우리자본의 세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가겠습니다.

해외의 자원을 우리의 에너지 자원으로./

대우는 이미 오래 전부터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의 실정을 감안, 세계 각국과 천연자원을 합작개발하는 형태의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내 자원공급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마두라유전, 미얀마의 해상가스전, 캐나다 우라늄광산 개발을 비롯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 야쿠츠 — 사하 공화국내의 가스전 개발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야쿠츠에서 생산되는 가스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북한을 통과하여 우라라라와 일본으로 수송될 예정인데, 일마전 대우는 이 파이프라인의 북한통과 합의를 계기로 남북 교류 및 경제협력사업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대우는, 현지개발을 통한 해외자원의 적극적인 국내유치를 추진하여 범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수입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앞장서고, 나아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바탕으로 「세계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가자, 21세기 한민족 「세계경영」의 시대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라는 긍정적 명제 아래 굽임없는 개척의 발길로 창조한 「대우神話」로부터 한민족 국제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세계경영」에 이르기까지 — 전세계 곳곳에서 밤으로 얼룩진 개척의 화신이 되어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부창출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는 대우의 해외대장정은 중단없는 한민족 도전의 발자취로 찬연히 빛날 것입니다.

이제 대우는, 이 땅에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창업 이래 줄곧 그랬던 것처럼 어떤 험난한 역정도 결코 굽히지 않고 헤쳐나가는 창조와 도전정신으로 다시 한번 우리경제의 세계화를 주도해 가겠습니다.

나아가, 세계속에 대우의 역사(役事)는 끝없이 계속되며, 미래를 향한 대우의 역사(歷史)는 항상 시작이라는 신념적 행동철학으로 위대한 한민족 「세계경영」의 시대를 이 땅에 펼쳐가겠습니다.

광개토대왕 碑
한주 지안현 통고무에 있는 고구려 제19대 광개토대왕의 능비. 고구려의 전국내륙, 광개토대왕의 대외 정복사업 등이 기록되어 있다.

대우가 있습니다.